

정소영의 근작들: 인스톨레이션의 零度

‘Zero Construction’ 이것은 2008년 정소영 개인전(사루비아 다방)의 제목이다. ‘zero’라는 단어가 내 눈길을 끄는데 그것은 이 단어가 - 어떤 심리적 연상작용을 통해- ‘zero degree’라고 하는 단어를 내 앞에 가져다 놓기 때문이다. 이 단어를 어떤 이가 영도(零度)라고 번역했는데(나는 지금 바르트의 번역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내게는 이 번역이 적절해 보인다. 여기서 영(零)은 뉴스 기상캐스터가 오늘은 “영상 몇 도입니다”, “영하 몇 도입니다” 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다. 어떤 수사학자(Jean Cohen)의 표현을 빌면 수사학은 표준(norm)으로부터 벗어난 것, 규범으로부터 이탈(deviation)한 것에 집중하는데 이 표준, 규범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영도’다. 좀 더 정확히 그것은 “차이가 감지되고 인식되며, 심지어는 측정되는 수사학적 영도 rhetoric degree-zero”(폴 리콰르)다. 그러니 수사학적 영도는 모든 문채(문체)의 작동을 가능케 해주는 기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다른 모든 ‘기원’이 그렇듯 영도 역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기온은 영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는가? 적어도 나는 아직 그 말을 듣지 못했거니와 그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 날은 모든 기온(온도)이 자신의 존재를 위탁하는 ‘기온의 기원’과 만나는 날이 될 것이다. 예술가라면 어떨까? 일찍이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작업)을 통해 ‘영도’를 구현 내지는 발현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그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작가/작품/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표현을 빌면 영도는 존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성배’와 같은 것이다. 물론 존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것, 없지만 있는 것에 우리는 매료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다시 ‘Zero Construction’으로 돌아오면 이 작업 역시 제목에서 명시하고 있듯 ‘영도’에 대한 탐색이다. 작가의 말을 들어보자. “이 작업은 공간의 생성에 대한 상상을 통해, 채석장이라는 물리적 가상공간을 조성한 프로젝트이다. 채석의 과정은 인공적 공간을 창조하는 건설 현장의 최초의 단계이며, 그 과정에서 양각(positive)의 사각형 돌은 채석됨과 동시에 돌산에 똑같은 형태의 음각(negative)의 공간을 형성한다. (...) 음각과 양각의 공간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ZERO CONSTRUCTION의 상태를 가시화하였다.”(작가노트) 이 말을 수용한다면 ‘Zero Construction’은 ‘posi-’와 ‘nega-’의 동시적 공존 상태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zero’를 지시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렇게 영(零)의 양쪽(+/-, 陰陽)을 동시에 공존시킴으로써 영(零)을 지시 내지는 상기시키는 전략은 정소영의 많은 작품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상승(↑)과

하강(↓) 의 동시적 공존(또는 미결정) 을 나타내는 상태로서 '매달린 suspended' 상태(↙, ↘) 에 대한 관심(<Uncompleted Fragment III> 2012), 또는 안(←) 과 밖(→) 의 동시적 공존을 가능케 하는 헐린(collapsed) 또는 깨진(shattered) 상태(↔) 에 대한 관심(<Open space> 2011, <Shattered> 2007) 이 그렇다. 또는 의미 수준에서 '녹아서 흘러내리는 액화'와 '얼어서 엉겨 붙는 고화'의 상태에 대한 관심(<Snowball>, 2006, <Growing> 2012), 또는 집짓기(채석장, 또는 공사장) 와 '허물기(폐허)'에 대한 관심(<Zero construction>2008)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영(零) 의 양쪽(+ / - , 陰陽) 이 동시적으로 공존하기에 정소영의 작업은 대체로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작가의 말: “<Linkdrop>(2007)은 하얀 종이 위에 떨어진 검은 잉크의 2 차원 점의 형태에서 시작되었다. 일시적이고 우연적이며 유동적인 액체는 3 차원의 전시 공간에서 공중에 다른 높이로 맺히고 중력에 의해 밑으로 떨어진다. 지하의 원유가 지상으로 나와 있는 모습 같기도 하며 이 형상은 동굴 안에서 자라는 증류석을 연상시키기도 한다.”(작가노트) 요컨대 정소영은 영(零) 을 구체적인 형태로 가시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가는 이쪽(+) 과 저쪽(-) 을 동시에 가시화하여, 또는 과정을 가시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零) 을 상기하게끔 한다. 이 경우 영(零) 은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것, 우리의 관찰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주어진 이질적인 것을 종합하거나 통각하고 그 매개점(zero) 을 산출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소영의 작업이 심리적이라고 말하겠다. 그렇게 주어지는 마음의 영토를 이 작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과 자연사이의 제 3 의 풍경”이라고 지칭하거나 나 그것을 - 좀 더 현학적으로- 객관과 주관이 판단이 중지된 상태에서 조우하는 탈중심적 장(de-centered field) 이라고 불러야겠다. 이 탈중심적 장에서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에 불안(모든 비결정의 상태가 우리에게 야기하는 바로 그 불안) 해 하거나 미묘하게 감지되는 영(零) 의 좌우, 상하, 안팎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마음의 상태를 즐길 수 있다. 정소영의 경우는 어떨까? 언젠가 이 작가는 자신의 작업이 “자연과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변이(mutation) 현상에 대한 강렬한 환희(fascination) 에서 유래한다”고 했는데, 이 작가에게서 돌출해 있는 것에서 움푹 들어간 것을 보는 일, 떠오르는 것에서 추락하는 것을 보는 일은 거의 생래적이다. 이러한 비결정적, 무규정적 상태에 직면하여 지금까지 정소영의 눈(瞞) 자들은 “자기동일성이라는 경계 밖으로 내쳐지고 억압받는 내부의 타자를 드러내는 행위”(이선영), “변화무쌍한 속성들을 마치 일종의 놀이처럼, 그 묘한 가시화의 쾌감마저 즐기고 있는

것”(민병직)으로 해석했고 그러한 해석은 충분히 수긍할만하지만 나는 어쩐지 그러한 해석들로 포괄할 수 없는 잉여가 남아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글을 ‘영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영(zero)은 비결정, 무규정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상정할 수 있는 최고의 평정상태(equilibrium)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쩌면 정소영의 불안한(또는 동요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작업들이 기실 ‘얻을 수 없지만 얻고자 소망하는’ 어떤 것에 관한 작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홍지석(미술비평, 단국대 연구교수)